

시 행정 견제·젊은 의회 호평

5월단체·행정기관 비판...현안사업 공론화 통해 보완 초·재선 의원 협력 385건 의안 처리 '일하는 의회' 구현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1년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광주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초선 비율이 70%인데다, 20~40대 의원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의정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개원 이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젊은 초선 의원이 기성 정치권에서는 금기시했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5월 단체와 행정기관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광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 등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수소트램 사업 추진과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걸차적 문제가 있었던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속의 과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젊은 의회’로 출발하면서 초·재선 의원들의 협력도 눈길을 끌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 간의 회기 동안 385건의 의안을 처리한 성과를 거두며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실현했다.

이는 역대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228건 중 47%인 108건이 의원 발의로 입안됐다. 이러한 노력 덕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는 대외적인 성과도 인정받았다.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7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추가 확충하고,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은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도 하면서 역대 의회와 달리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해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회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

현장 정치·지역 갈등 ‘명암’

주 현안 122차례 여론 수렴·섬지역 용수 공급 조례 등 주목 의대 유치·전남도 동부본부 개편 과정 등·서 갈등 야기 지적

제12대 전남도의회 개원 1년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제 12대 전남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국립대 유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과정에서 동·서부권으로 갈린 유치 목소리를 단일화하는 데 앞장서기는 커녕,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강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년 간 12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428건(조례안 211건, 건의결의안 88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체 조

례안(211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이 172건(81.5%)에 달해 도민 대의 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 조례안’의 경우 주민생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의원별로는 초선의 이재태(민주·나주 3)의원이 11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많았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따른 지난 1년 간 86건의 의원 수상 실적도 눈에 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정치에도 주력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체 조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 등 122차례의 정책 개발 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전남도립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 학과 전면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이끌어냈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남 국립의과대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역별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형성에 힘을 보탤었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보류하는가 하면, 실적살기를 염두에 두고 조례 명칭과 문구를 바꾸는 형태 위주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던 사례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신뢰의 의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시청 지하1층 구내식당 앞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韓(광주) 잔 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부패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 “소통 창구 제도화로 시정 방향 잡겠다”

취임 2년 차 첫 정례조회...맘카페·SNS·오프라인 등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직접 소통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8760(1년) 시간의 소회와 2만6280 시간(3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취임 2년 차 첫 정례 조회에서 직접 소통, 다양화, 제도화 등 소통 원칙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소통은 만나서 공감할 뿐 아니라 예산, 정책 반영에 이르러야 완성된다”며 “여기에는 원칙과 책임이 따르고 눈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

민은 물론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최근 집단 민원을 예로 들며 “휴페이지,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도 이를 챙겨보지 못했다”는 시민이 있는 만큼 ‘맘카페’, SNS, 오프라인 등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강기정 이름으로 ‘이건 틀립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겠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또 직접 소통, 다양화, 제도화 등 소통

의 3원칙도 내놔다. 시민과 직접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다양한 직접 소통 제도화를 통해 이 길이 옳은지,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빠르지 않은지, 시민 행복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취임 후 일일 상황 회의, 화요 오찬, 금요 전략회의 등으로 내부 소통을 이어가고 월요 대화, 수요 정책 소풍 등 외부와의 토론을 정례화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

전남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

지난해보다 23% 늘어 24만 건...농지 이용실태 등

전남도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만 건(18만7000ha)을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19만5000건)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숲맑은 담양쌀’ 고품질 브랜드 ‘대상’

전남도, 올해 10대 쌀 선정

전남도가 고품질 명품 쌀 생산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 등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

전국 최고의 명품 쌀의 명성을 잇고 전남 쌀 생산·유통을 견인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영예의 대상은 ‘대숲맑은 담양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우수상은 순천 ‘나누리’와 무안 ‘황토랑쌀’, 강진 ‘프리미엄 호평’이 영광을 안았다.

또 장려상엔 곡성 ‘백세미’, 나주 ‘왕건이 탐낸 쌀’, 함평 ‘함평나비 쌀’, 장흥 ‘아름피 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가 각각 선정됐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식미 평가에서 최고점, 품위·품질평가 등에서 고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계절이 사는 집’은 친환경 쌀과 품위·품질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도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사포면연구원 등 6개 기관에 품종 혼입과 품위·품질평가 및 안전성 검사, 식미평가 등을 의뢰해 평가를 추진했다. 선정된 브랜드 쌀에 대해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상품을 차별화하고,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일은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